

전 남

PRCUD '여수 세계 4대 미항' 선언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

'여수라운드 테이블포럼' 폐막...개발 제안 쏟아져

동북아 중심 한반도 남해안 정중앙에 위치한 여수시가 '세계 4대 미항'(美港)임을 선언했다.

여수시는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PRCUD) 여수라운드 테이블포럼' 폐막식에서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임을 선언했다.

여수라운드 테이블포럼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국내외 석학 40여 명이 참석, 종합토론에서 여수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박람회 등을 통해 조성된 개발 잠재력은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임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수시의 현실적인 전략과 공간계획을 준비하고,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 여수시가 기대하는 목표 인구 등을 명확히 해 인프라 확충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여수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수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전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인천~여수 직항노선을 운영해 시간 소모를 최소화해 접근성

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전략으로는 수도권에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2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제2의 주택, 은퇴자도시 등도 좋은 전략이 된다고 밝히며,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하고, 산학연이나 민간자본과 함께 개발 문화행사의 센터로서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를 지일리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 회장은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으로 안착할 수 있게 PRCUD에서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석 시장은 "여수라운드 테이블포럼이 박람회 개최 기간에 열리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며 "세계적인 석학들의 제안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Oh! Yeosu 2020' 계획에 반영, 세계 사람이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도시, 국제 해양관광레저 스포츠 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청자축제 꽃탑 만들기

강진군청 직원들이 최근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박물관 앞 광장에서 '제40회 강진 청자축제'를 알리는 대형 꽃탑을 만들고 있다. 군은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자축제를 개최한다. <강진군 제공>

취임 100일 강진원 강진군수

'맞춤형 통합복지 실현' 총력

민선 5기 군수 취임 100일을 맞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수요자중심 맞춤형 통합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당초 20억원이던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늘렸다. 우선 올해 2억원을 반영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현재 500개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0개로 확대 제공해 노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공유 센터인 23개소의 경로당 시설을 개

보수해서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을 위해 1억4000만원을 지원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각종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군은 10개소 300여 명의 자원봉사 전문조직을 육성해서 지원요청 시 신속하게 안정적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희망복지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략회의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영업본부장 박중수)는 최근 전남농협 대강당에서 도내 시·군지부장, 지점장, 여성관리단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수사무소 시상식과 사업추진 우수사례발표 등 삼박자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가운데 2012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수사무소 시상식과 사업추진 우수사례발표 등 삼박자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기존마트 인수후 무단영업' SSM 상대 소송 김제시 전국 첫 두차례 승소

김제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SSM(기업형 슈퍼마켓)과의 2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역상권 보호와 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조례를 지난해 2월 제정·공포한 바 있다.

시는 기존 마트를 인수한 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영업을 한 관내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에 대해 1차 시정명령(식품위생법 관련법규 위반)에 이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을 했다.

이에 L마트 측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원고 측(L마트)은 조례제정 이전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2011년 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제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며 김제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마트측이 불복 항소했으나 고법은 지난 23일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제시 관계자는 "원고측이 상고할 경우 지역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창군, 군민 편의 업무개선과제 88건 발굴

고창군이 민원인 편의증진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서권열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에서 발굴한 88개의 군민 편의증진 업무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전산시스템에 민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입력을 통한 중복 지원 방지 ▲통신요금 통합 집행으로 예산절감 ▲결혼이민자 취업연계로 사회 적응훈련 확대 ▲맨손어업 신고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대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선정됐다. 또 ▲농촌개발대학 운영방향 개선 ▲고인돌 유적지 탐방열차 증설운영 ▲야외·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등도 논의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경찰, 주취·가정폭력 예방 업무협약

남원경찰서(서장 박춘원)와 남원의료원(원장 정석구), YWCA(회장 이혜옥)는 지난 24일 주취·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경찰은 상습 주취폭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상환에 따른 적

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상습 주취자에 대해 단계별 재활치료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등 재범방지 및 사회재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 샘고을시장서 쇼핑·관광 동시에

시·상인회·중기청, 특성화 시장 육성 '용감한 장사꾼' 진행

정읍시가 정읍 대표적인 전통시장에 청년 문화, 소비 감수성을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정읍시는 "상인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샘고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청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용감한 장사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

진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수단을 조달하면서 휴식을 즐기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시키자는 취지다.

사업으로 용감한 장사꾼 프로젝트, 공간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및 축제, 특산물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시는 시장 장업을 원하는 30명을 선발, 지난 23일부터 '불만, 장사 아이템이 되다'를 주제로 워크

숍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창업 수업을 받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해 8월부터 시장에서 활동한다.

이후 여름방 공연, 상인·예술인이 함께하는 베틀시장, 먹거리장터,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실력이 좋은 4팀을 선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실험점포 창업에 도울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임실 '붉은고추' 수매 시작

임실군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전북 동부권고추농협은 붉은고추 수매를 25일부터 시작했다. /연협뉴스

빨배 타고 Go! Go! 내달 4일 보성서 갯벌축제

오는 8월 4일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갯벌어촌 체험센터에서 갯벌과 빨배를 소재로 한 갯벌 레포츠 축제가 열린다.

전남도와 보성군 주최로 열리는 '제2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빨배대회'는 '빨배타고 고고'(go해go)를 테마로 일일탈출·갯벌 레포츠 등 7개 분야 25개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 개막식과 국제 다문화가정 레저 빨배 경기에 이어 오후엔 공식행사인 '제2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빨배대회'와 갯벌 즐다리기·갯벌단체 밭어내기·대야타고 아빠와 함께 등 다채로운 갯벌 레포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축제 기간에 에어바운스·녹차머드 뷰티·빨배타기·천연염색·편백나무 자르기·웰빙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아빠와 대야타기 게임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올해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접수(061-850-5460)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화력발전소 포항의회 통과됐는데...

해남 火電 추진위 고무...저지위 '광범위 반대운동'

25일 포항시의회에서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찬반논란을 겪고 있는 해남 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남화력 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항시의회가 25일 임시회를 열고 전회의원 32명이

참석해 찬성 17·반대 15로 유치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유치결의안에 대해 투표 결과 찬성 12·반대 18·기권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해남그린 화력발전소 사업추체이기도 한 MPC는 사업비 8조원을 투입해

5000mw규모의 포항 그린화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해남보다 잘 살고 청정지역인 포항지역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뜻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남 화력발전소 저지 전남 서남부권(해남·신안·목포·진도) 대책위원회는 "해남군이 지역 주민의 반대여론과 군의회의 고심 어린 결정을 계속 무시하면 광범위한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순천만 정원박람회 입장권 가격 확정...성인 1만6000원

내년 4월 열리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입장권 가격이 확정됐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24일 16차 이사회를 열고 입장형태, 입장객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 1만6000원·청소년 1만2000원·어린이

8000원 등으로 입장권 가격을 결정했다. 단체권(내국인 30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은 성인 1만3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6000원이다.

입장권 사전 예매 할인 요금은 1단계 20%, 2단계 10%를 추가로 할인

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하사 이하 군인, 4급 이하 장애인 등은 반값을 적용한다. 또 국가공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또 4세 미만 등은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단 신

전주지방환경청→새만금 지방환경청 새출발

전주지방환경청은 25일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조직을 확대개편해 새만금 지방환경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했다.

청장 직급은 4급에서 고위 나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실무인력도 62명에서 69명으로 늘었다.

새만금유역과 전북지역 상수원, 환경오염·환경법령을 반복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환경오염행위를 특별지도·점검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 1월부터 새만금호의 환경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뤄졌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보건소 내일 '태고 음악 콘서트'

군산시 보건소와 군산 시립예술단은 27일 오후 2시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임산부를 위한 '태고 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태아를 위한 음악선물로 태아의 두뇌·감각개발에 도움을 주고, 산모의 심신상태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G선상의 아리아' 등 5곡을 연주하게 되고, 군산시립합창단은 남녀 솔로곡과 이중창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유취수 참사랑어머니회 소장을 초빙해 임신·출산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승범 정읍시의장 의료봉사 대구 대학생들 격려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정읍시 산외면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한의대 학생들을 찾아 격려했다.

한방의료 봉사단은 산외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승범 의장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중풍이나 치매·퇴행성 질환 증가로 한방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한방 의료 봉사 활동을 지역 주민에 건강증진에 도움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마실길' 탐방 안전수칙 마련

부안군과 부안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올레길 사건에 대비해 관광객의 안전한 '부안 마실길' 탐방을 위해 탐방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군과 부안경찰은 '부안 마실길' 코스에서 취약구간인 격포항에서 공항 이순신세트장 구간 및 모항

갯벌체험장에서 왕포마을까지 2구간에 걸쳐 경찰서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탐방안전수칙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부안 마실길 안내소(063-584-0456)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